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10호

2020. 1. 10.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총장 · 총무처장과의 새해 첫 만남

2020년 1월 9일(목) 10시, 총장실에서 신남호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우승 총장이 신년 첫 만남을 가졌다. 총무처장, 인사팀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김우승 총장은 대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 가치 중심대학 실현을 위한 계획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능직군 일터 환경개선, 휴양지 확대 등의 노력을 예로 들며 노동조합 및 직원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위원장은 총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대학 발전과 직원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조합원의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비판, 호소가 총장에게 왜곡되지 않고 닿을 수 있어야만 대학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견해로 화답하였다. 특히 “인간의 뇌는 위협, 회피가 아닌 보상과 연계될 때 전향적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다.” 라는 연구를 인용하면서 현실에게 가장 강력한 촉매는 승진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하위 직급의 승진비율을 높이는 개선안을 제시하며 약 50분간 진행된 2020년의 첫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 1월 3일(목) 16시 30분에 총무처장실에서 박준원 신임 총무처장을 만나 2020년 1월 승진에 관한 조합원 의견을 전달하였고 노동조합과 총무처가 승진, 전보, 교육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임을 상호 약속하였다.

세상의 모든 리더가 하나같이 소통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통을 빙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전달만 있을 뿐이었다. 소통도 물리적 중력 법칙처럼 위에서 아래로의 전달은 힘이 들지 않지만 아래에서 위로의 전달에는 엄청난 힘과 노력 그리고 각오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자에게는 작은 목소리로 들릴 뿐이지만 그 목소리를 쏘아 올린 것은 엄청난 아우성이며 외침이다. 2020년 새해, 이 에너지와 아우성이 대학과 직원의 동반 발전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대의원회 개최

2020년 노동조합 운영과 임·단협 준비, 대의원 보궐 선출을 위한 2020년 첫 대의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구분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일시	2020. 1. 16.(목) 14:00 (서울⇄ERICA 화상회의 연결)	
장소	신본관 제2회의실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안건	-안건1. 대의원 보궐 선출 -안건2. 노동조합 2020년 운영(안) 보고 -안건3. 단협(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신입직원 입사 1주년 기념식

노동조합은 올 1월로 입사 1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상반기 입사자 14명에 대한 축하 기념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구 분	내 용
일시	-2020. 1. 30.(목) 16:00~18:30 (만찬 포함) * 상세 프로그램 조정 중
장소	-서울 국제관 108호 라운지 (예정)
참석	-2019년 상반기 입사 조합원 14명 (서울 9명+ERI 5명) -1주년 대상자의 전/현직 팀장 (서울 4개팀+ERI 4개팀) -1주년 대상자의 멘토 10명 -노동조합 및 총무처 관계자 -기타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 등